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Doctoral Researchers in Digital Age

김 정 환(Jeong-Hwan Kim)*
김 재 훈(Jayhoon Kim)**
황 재 영(Jae-Young Hwang)***

< 목 차 >

I. 서론	1. 인구 통계적 특성
II. 이론적 배경	2. 일반적인 학술정보 활용 패턴
III. 연구 설계	3. 학술정보 활용 이유 또는 태도
1. 연구대상 및 절차	4.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
2. 면접조사 방법	5. 물리적 도서관 vs 전자정보 접근
3. 면접질문지 구성	6. 전자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IV. 분석결과와 해석	V. 결론

초 록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은 종전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술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달라진 정보환경에서 국내 박사과정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5개의 범주내에서 13개의 질문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집단 면접조사를 하였다. 5가지 범주는 ① 일반적인 학술정보 활용 패턴, ② 학술정보 활용 이유(태도), ③ IT Skill과 정보활용능력, ④ 물리적 도서관 이용 대비 전자정보 접근, ⑤ 전자정보 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견해 등이다. 특히,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와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을 균등하게 선발하여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두 집단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학술정보 활용 목적, 정보활용능력, 인쇄자료 대비 전자자료 활용 비율,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이나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즐겨찾는 학술 포털사이트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디지털환경, 과학기술 학술연구자, 인문사회 학술연구자,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ABSTRACT

In the digital environment where the Internet and IT change rapidly, researchers have utilized scientific information by relying on more complex and various media than before. This study performed a group interview with thirteen questions derived from five categories in order to understand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Korean doctoral researchers in this information environment. The five categories are (1) identifying information resource usage pattern, (2) attitude towards information resources and reasons for use, (3) IT skills and information literacy, (4) physical library use vs electronic access, and (5) attitudes toward the digital librar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wo groups of researchers selected equally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doing the interview. The research showed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goal of using scientific information, information literacy, the ratio of using written materials to electronic resources, and routes of acquiring research ideas or knowledge,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materials used for studies or researches and in favorite scientific portal sites.

Keywords: Digital Environment, Science & Technology Researcher, Humanity & Social Science Researcher,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유통본부 책임연구원(kimjh@kisti.re.kr)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유통본부 선임연구원(jay.kim@kisti.re.kr) (공동저자)

***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정보실 선임기술원(jyhwaung@hanmail.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11년 8월 24일 •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6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서론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도서관 웹 사이트 이외에도 학술정보 포털사이트, 인터넷 포털, 심지어는 동료 연구자들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연구자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늘어나고, 자료유형이 다양해지고, 생산되는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정보 활용 패턴과 정보요구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디지털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학술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가?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은 종래의 학술정보 이용행태와는 다르게 정보를 추구하거나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이해하고 이들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이들 두 집단이 다양한 전자 자료와 매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떤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로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추구행태와 정보요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사서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정책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면접조사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의 체계화 및 실증연구의 이론적 틀을 세웠다. 면접조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면접조사법과 같은 질적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면접자들의 태도나 표정을 통해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문답을 통해 표현하기 힘든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를 비롯하여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정 주제 분야나 이용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수행한 최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비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배경재(2010)¹⁾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서비스 이용자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보요구와 이용행태가 어떤지를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2개 대학에 소속된 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정보요구와 이용행태가 다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윤정옥(2009)²⁾은 인문학자들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5개 대학 소속 인문학 분야 교수 7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가능한 설문지 132개를 대상으로 전자형태로 입수한 정도, 주로 사용하는 전자 자료의 유형, 전자정보 접근 방법에 대한 인지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전자정보원, 전자정보원의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지연 등(2008)³⁾은 국내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탐색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학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 연구의 아이디어를 알아내는 방법,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정보이용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박일중 등(2001)⁴⁾은 전자공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지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연구단계별 정보요구 종류, 자료 유형별, 생산 국가별 이용 빈도, 자료 검색방법 및 자료수집처, 정보입수의 난이도 등을 조사하였다.

박준식 등(2000)⁵⁾은 사회과학자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학술정보원의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으며 사회과학 관련 교수들의 자료수집 기간과 방법, 자료수집의 난이도 및 검색방법의 선호도, 자료수집 소요시간, 최신자료의 이용률 등을 분석하였다.

최은주(1997)⁶⁾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서로 다른 이용자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보이용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보추구과정에 나타나는 현실적 특성들이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가설을 토대로 하여 규명하였다.

한편 국외의 경우 Gardiner(2006)⁷⁾는 British 대학 학자들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 이

- 1) 배경재,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서비스 대학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pp.157-176.
- 2) 윤정옥, "인문학자의 정보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6권, 제1호(2009), pp.7-34.
- 3) Jee-Yeon Lee, Seunghee Han, Soohyung Joo, "The Analysis of the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5, No.2(2008), pp.127-141.
- 4) 박일중, 백수연, "전자공학전공 대학원생들의 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pp.31-58.
- 5) 박준식, 박일중, 신상현, "대학교수들의 학술정보원 이용행태분석: K대학의 사회과학교수집단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2000), pp.21-43.
- 6) 최은주, "자연과학(自然科學) 및 사회과학(社會科學) 연구자(研究者)들의 정보이용특성(情報利用特性) 분석(分析)," 정보관리학회지, 제14권, 제1호(1997), pp.27-45.
- 7) Donna Gardiner, David McMenemy and Gobinda Chowdhury, "A snapshot of information use patterns of

용행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컴퓨터와 정보 과학, 경영학, 영문학 등 3개 분야 학술 연구자들의 정보 이용행태를 6개 범주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Boe Horton은 중국(2010)⁸⁾과 대만(2010)⁹⁾의 대학원 박사과정 학술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이용행태와 정보요구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였다. 중국의 경우 6개 대학, 대만의 경우 14개 대학을 표본으로 집단 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와 공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Niu 등(2010)¹⁰⁾은 미국 내 5개 대학의 2,063명의 이공계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정보이용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량적으로 연구하여 소속 대학, 인구 통계적 차이에 관계없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 검색과 정보 활용이 주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웹 2.0 서비스를 활용한 온라인 협업과 정보공유 방식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등장을 지적하였다.

Tenopir(2009)¹¹⁾는 1977년부터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공계 및 사회과학 교수들의 정보 탐색, 정보입수, 정보읽기, 정보 활용에 패턴을 추적 연구하고 있다. 2009년 연구에서는 전자저널의 확산에 따른 정보 수요자들의 이용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술논문을 보다 많이 읽지만 건당 읽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넓은 범위의 학술지를 과거 분까지 읽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도서관 전자장서(e-Collection) 활용이 증가되고 있음을 밝혔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S대학교와 C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위과정에 있는 학술연구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interview)를 하였다. 박사과정 학술연구자들로 연구 대상자를 제한한 이유는 많

academics in British universities," *Online Information Review*, Vol.30, No.4(2006), pp.341-359.

8) Boe Horton, "Ever Changing Information Requirements from New Generation of Scholars" A Joint Research by CALIS and ProQuest (2010).

9) Boe Horton, "Ever Channing Requirements from New Generation of Scholars" A Joint Research by ProQuest and TBMC (2010).

10) Niu, X., Hemminger, B. M., Lown, C., Adams, S., Brown, C., Level, A., McLure, M., Powers, A., Tennant, M. R. and Cataldo, T., "National study of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cademic researcher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61, No.5(2010), pp.869-890.

11) Carol Tenopir et al., "Electronic journals and changes in scholarly article seeking and reading patterns," *Aslib Proceedings*, Vol.61, No.1(2009), pp.5-32.

은 수의 교수가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사실상 소속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향이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연구자들과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상호 비교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표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전공별로 균등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피면접자는 각 대학별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와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를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를 별도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고 1개 대학교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편중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피면접자를 선정하기 위해 먼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가입 회원 중에서 S대학교와 C대학교의 석사학위 이상의 고빈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피면접자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에 본 연구의 취지와 자격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학술연구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면접자의 최종 선발은 인터뷰 참가 신청서 제출자 중에서 현재 학위 취득 여부, 학과(전공), 연령대, 도서관 사용 빈도 등 다방면의 이력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선발하였다.

실제 면접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발된 피면접자 19명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간단한 면접내용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피면접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면접조사 때 개인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면접조사는 각기 다른 장소와 시기에 이루어졌다. S대학의 경우 2011년 4월 30일 대학교 세미나실에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하고, 이어서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 6명을 집단 면접하였다. C대학의 경우는 2011년 6월 2일 외부 세미나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2. 면접조사 방법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학술연구자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면접조사(interview)란 조사자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대면하여 구두 질문을 행하거나 전화로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면접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면접 유형으로는 구조적, 공개적 방법(structured open interview)을 선택하였다. 구조적, 공개적 면접법은 면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질문 내용과 응답 범주가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응답자는 조사자로부터 질문과 응답의 내용을 듣고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응답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론연구와 선행연구에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설계하였다.

구조화된 면접질문지는 집단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만함을 제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범주화된 의견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면접조사는 인문사회별 또는 과학기술별로 4~5명씩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면접자들은 질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한 상태에서 면접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활발하게 본인의 경험과 견해를 밝히는 분위기였다.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그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다.

면접조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면접조사자가 13개의 질문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였고 피면접자들은 문항별로 개인의 의견과 경험을 답변하도록 하였다. 이 때 피면접자가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면접 분위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집단 토론도 허용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조사가 끝난 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조사와 질문 내용은 동일하나 문항별로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구조화된 답변을 유도하였다. 처음부터 구조화된 설문조사 형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피면접자가 문항별 보기 내에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면접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두 단계의 면접조사를 함으로써 자유로운 형식과 통제된 형식에서 피면접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3. 면접질문지 구성

면접조사 질문 문항은 이용자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로부터 질문 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와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의 정보 이용행태를 상호 비교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다수 참고하였다. 특히 Donna Gardiner(2006)가 제시한 질문지 범주(section)가 본 연구의 취지와 가장 유사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도 6개의 범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6개 범주에 포함된 세부 질문 항목은 디지털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이 전자정보 내지는 전자정보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도출하였다. 6개 범주는 ① 일반적인 학술정보 활용 패턴, ② 학술정보 활용 이유(태도), ③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 ④ 물리적 도서관 이용 대비 전자정보 접근, ⑤ 전자정보 활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견해, ⑥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이다(〈표 1〉 참조).

면접질문지의 내용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와 관련 참여자들이 몇 차례의 검토와 수정을 반복하여 질문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질문 내용은 다시 인문사회분야 연구원 5명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전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검토 의견을 최종 질문에 반영하였다.

〈표 1〉 면접질문지 구성 항목

범 주	질문 문항	척 도
일반적인 학술정보 활용 패턴	• 도서관 웹 사이트 활용 빈도 및 사유	5점
	•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유형	다중선택
학술정보 활용 이유 또는 태도	•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	다중선택
	•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5점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	• 컴퓨팅 환경에서 학술정보 활용이나 접근의 능숙도	5점
	• 검색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법(명령어) 숙지도	5점
물리적 도서관 vs 전자정보 접근	• 전체 학술정보 이용량 중에서 인쇄자료 vs 전자 자료의 활용 비율	백분율
	• 데스크톱 PC vs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학술정보량의 비율	백분율
	•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다중선택
	•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	다중선택
전자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 전자정보원 활용의 장점 및 단점	자유기술
	• 미래 학술정보 이용환경에 대한 예측	자유기술
인구 통계적 특성	• 연령/성별/전공/신분	

IV. 분석결과와 해석

1. 인구 통계적 특성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6명(31.6%), 30대 11명(57.9%), 50대 1명(5.3%), 60대 1명(5.3%)으로 대부분 20~30대의 젊은 박사 후보자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은 남자 13명(68.4%), 여자 6명(31.6%)으로 남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은 인문사회분야 10명(52.6%), 과학기술분야 9명(47.4%)이다. 세부 전공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국어국문학, 서어서문학, 영문학, 경제학, 경영학, 정책학, 행정학, 정치학 등이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바이오시스템공학, 보건학, 식품공학, 생물약학, 약화학, 약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등이다. 신분은 교수 1명(5.3%), 연구원 3명(15.8%), 학생(조교) 13명(68.4%), 기업체 종사자 1명(5.3%), 기타 1명(5.3%)이다 (〈표 2〉 참조).

〈표 2〉 인구 통계적 특성

분항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0대	6	31.6
	30대	11	57.9
	40대	0	0.0
	50대	1	5.3
	60대	1	5.3
	계	19	100
성별	남자	13	68.4
	여자	6	31.6
	계	19	100.0
전공	인문사회	10	52.6
	과학기술	9	47.4
	계	19	100.0
신분	교수	1	5.3
	연구원	3	15.8
	학생(조교)	13	68.4
	기업체 종사자	1	5.3
	기타	1	5.3
	계	19	100.0

2. 일반적인 학술정보 활용 패턴

가. 도서관 웹 사이트 사용빈도와 이유

도서관 웹 사이트 사용빈도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주2~3회 이상 방문이 7명(70%), 주1회 이상이 3명(30%)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주2~3회 이상 방문이 4명(44.4%), 월2~3회 이상이 3명(33.3%), 년5~6회 1명(11.1%),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1명(11.1%)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이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에 비해 도서관 웹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도서관 웹 사이트 사용빈도

구분	도서관 웹 사이트 사용빈도					
	주2~3회	주1회	월2~3회	년5~6회	사용 안함	계
인문사회	7	3	0	0	0	10
	(70.0%)	(30.0%)	(0.0%)	(0.0%)	(0.0%)	(100%)
과학기술	4	0	3	1	1	9
	(44.4%)	(0.0%)	(33.3%)	(11.1%)	(11.1%)	(100%)
계	11	3	3	1	1	19
	(57.9%)	(15.8%)	(15.8%)	(5.3%)	(5.3%)	(100%)

도서관 웹 사이트 사용빈도와 함께 도서관 웹 사이트나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이유는 도서관이 구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자료(원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단행본 이용이나 대출을 위해서, 전자 자료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밝혀진 결과이다. 한편 인문학 학술연구자는 보존서고의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학도서관 웹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국내의 전자저널이나 학술 DB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웹 사이트를 경유하여 다른 정보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검색한 결과를 한꺼번에 출력하는 스타일인데 이 때 도서관을 방문하여 출력한다. 도서관은 물리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행정학 전공, C 박사후보생)

나.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에 대해 다중응답 조사를 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학술지 10명(33.3%), 단행본 8명(26.7%), 학위논문 7명(2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학술지 8명(29.6%), 연구보고서 5명(18.5%), 단행본 4명(14.8%), 학위논문 3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술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하지만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특별히 단행본과 학위논문을 많이 활용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단행본과 학위논문 이외에도 연구보고서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

구분	학업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유형(다중응답)								
	학술지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컨퍼런스프로시딩	통계(수치)데이터	동향분석	특허	계
인문사회	10	8	7	1	1	2	1	0	30
	(33.3%)	(26.7%)	(23.3%)	(3.3%)	(3.3%)	(6.7%)	(3.3%)	(0.0%)	(100%)
과학기술	8	4	3	5	0	2	1	4	27
	(29.6%)	(14.8%)	(11.1%)	(18.5%)	(0.0%)	(7.4%)	(3.7%)	(14.8%)	(100%)
계	18	12	10	6	1	4	2	4	57
	(31.6%)	(21.1%)	(17.5%)	(10.5%)	(1.8%)	(7.0%)	(3.5%)	(7.0%)	(100%)

인터뷰에 의하면, 사회과학(행정학, 정치학)분야 학술연구자들은 특별히 전공 주제 분야와 관련하여 통계자료, 신문자료, Raw Data 등 통계데이터나 최신성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인문학 학술연구자들(서어서문, 국어국문)은 단행본이나 비평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은 연구보고서, 특허정보, 통계자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책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 신문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이다. (중략) 연구 주제의 특성상 최신성 있는 자료가 주로 필요하고, 최근의 학술저널도 꽤 이용하는 편이고, 과거 소급자료도 필요하다. 그 이외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필요로 하며, 단행본을 통해 연구 주제 전체의 큰 그림이나 역사적인 맥락 및 체계를 파악한다.” (행정학 전공, C 박사후보생)

“최근 경향은 저널 논문을 통해 파악하며,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는 연구보고서와 특허정보도 많이 참고한다.” (재료공학 전공, S 박사후보생)

3. 학술정보 활용 이유 또는 태도

가.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 다중응답 조사를 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논문작성 10명(50.0%), 학업과제수행 5명(25.0%), 프로젝트기획 3명(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논문작성 7명(38.9%), 프로젝트기획 4명(22.2%), 학업과제수행 3명(16.7%)의 순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

구분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 (다중응답)						
	논문작성	프로젝트 기획(수행)	학업과제 수행	강의준비 등 교수활동	동향파악	상품개발	계
인문사회	10	3	5	0	2	0	20
	(50.0%)	(15.0%)	(25.0%)	(0.0%)	(10.0%)	(0.0%)	(100%)
과학기술	7	4	3	1	2	1	18
	(38.9%)	(22.2%)	(16.7%)	(5.6%)	(11.1%)	(5.6%)	(100%)
계	17	7	8	1	4	1	38
	(44.7%)	(18.4%)	(21.1%)	(2.6%)	(10.5%)	(2.6%)	(100%)

이상의 결과를 통해 두 집단 모두 논문작성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피면접자 대부분이 학위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진 목적으로는 최신 연구동향이나 선행연구 파악 등이 있었다.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실험방향 설정, 연구주제 및 내용 파악, 새로운 아이템 발굴 등이 있었다.

“학술정보 활용 목적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주중에는 연구 및 논문 작성을 위해 학술정보를 찾는다. 두 번째는 학회지 등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세 번째는 시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정치

학 전공, L 박사후보생)

“현재 박사학위를 마치고 직장에 근무하는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강의준비, 논문작성을 위해서 학술 정보를 활용했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제품 개발이나 시장정보 파악을 위해 정보를 활용한다.” (계약학 전공, L 박사후보생)

나.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지도교수 7명(70%), 동료연구자 2명(20%), 기타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지도교수 4명(44.4%), 동료연구자 3명(33.3%), 도서관사서 1명(11.1%), 기타 1명(11.1%)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인문사회분야는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높은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도교수이외에도 동료연구자나 도서관사서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구분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				
	지도교수	동료연구자	도서관사서	기타	계
인문사회	7	2	0	1	10
	(70.0%)	(20.0%)	(0.0%)	(10.0%)	(100%)
과학기술	4	3	1	1	9
	(44.4%)	(33.3%)	(11.1%)	(11.1%)	(100%)
계	11	5	1	2	19
	(57.9%)	(26.3%)	(5.3%)	(10.5%)	(100%)

인터뷰에 의하면, 지도교수나 동료연구자 외에도 연구자 스스로 정보를 찾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확산과 개인의 정보검색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면접자가 소속한 학교의 경우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주제 사서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주제 분야의 정보원을 보완하는 효과를 보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 같다. 하지만 교수님께 질문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이럴 때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선배가 최신의 동향이나 정보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사회복지 전공, J 박사후보생)

“교수님의 영향력이 가장 큼니다만 분야별 대가들의 논문을 통해 실험방향이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한다.” (약화학 전공, K 박사후보생)

4.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

가. 컴퓨팅 환경에서 학술정보 활용이나 접근의 능숙도

컴퓨팅 환경에서 학술정보 활용이나 접근의 능숙도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능숙함 7명(70%), 매우 능숙함 2명(20%), 보통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능숙함 4명(44.4%), 보통 4명(44.4%) 능숙하지 않음 1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면접자 대부분이 고학력자이고 연령층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컴퓨팅 환경에서의 학술정보 활용 능력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표 7> 참조).

<표 7> 컴퓨팅 환경에서 학술정보 활용이나 접근의 능숙도

구분	컴퓨팅 환경에서 학술정보 활용이나 접근의 능숙도					계
	매우 능숙함	능숙함	보통	능숙하지 않음	매우 능숙하지 않음	
인문사회	2	7	1	0	0	10
	(20.0%)	(70.0%)	(10.0%)	(0.0%)	(0.0%)	(100%)
과학기술	0	4	4	1	0	9
	(0.0%)	(44.4%)	(44.4%)	(11.2%)	(0.0%)	(100%)
계	2	11	5	1	0	19
	(10.5%)	(57.9%)	(26.3%)	(5.3%)	(0.0%)	(100%)

인터뷰에 의하면, 두 집단 모두 기본검색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고급검색(상세검색)에 대해서는 사용한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젊은 학술연구자의 경우 정보검색에 대한 문제점 보다는 본인이 저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시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고민이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학술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EndNote나 RefWorks와 같은 서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의견으로 정보검색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도 보였다.

“DB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찾아서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저장한 자료를 쉽게 그리고 확실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에는 이러한 분야의 톨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전공, J 박사후보생)

“EndNote를 이용해서 자료를 관리한다. 자료 검색 및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나 문제가 없다. 검색식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검색식을 저장 후 이용한다.” (재료공학, S 박사후보생)

나. 검색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법 숙지도

검색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법 숙지도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잘 앎 4명(40%), 보통 4명(40%), 매우 잘 앎 1명(10%), 잘 모름 1명(10%)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보통 5명(55.6%), 잘 앎 2명(22.2%), 매우 잘 앎 1명(11.1%), 잘 모름 1명(11.1%)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어느 정도 검색기법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표 8〉 참조).

〈표 8〉 검색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법(명령어) 숙지도

구분	검색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기법(명령어) 숙지도					계
	매우 잘 앎	잘 앎	보통	잘 모름	매우 잘 모름	
인문사회	1	4	4	1	0	10
	(10.0%)	(40.0%)	(40.0%)	(10.0%)	(0.0%)	(100%)
과학기술	1	2	5	1	0	9
	(11.1%)	(22.2%)	(55.6%)	(11.1%)	(0.0%)	(100%)
계	2	6	9	2	0	19
	(10.5%)	(31.6%)	(47.4%)	(10.5%)	(0.0%)	(100%)

인터뷰에 의하면, 인문사회(행정학 전공) 학술연구자의 경우 정보검색식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검색결과를 불신하는 경향도 보였다. 행정학 전공 연구자인 경우 키워드 검색보다는 브라우징을 통해 검색결과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아서가 아니라 없어서 문제라는 답변도 있었다.

“불린 검색으로 좋은 검색결과를 얻기 어려웠고 결국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결국 안내심이 중요한 것 같다.” (정치학 전공, L 박사후보생)

“불린 검색을 일반적으로 이용하며, 검색 이력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다. 그런데 검색 DB별로 검색결과가 달라서 우려가 있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L 박사후보생)

5. 물리적 도서관 vs 전자정보 접근

가. 전체 학술정보 이용량 중에서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의 활용 비율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의 활용 비율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인쇄자료를 34.0%, 전자 자료를 66.0%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연구자들도 인쇄자료 35.6%, 전자자료 64.4%

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인쇄자료 보다는 전자 자료를 2배 이상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전체 학술정보 이용량 중에서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의 활용 비율

구분	전체 학술정보 이용량 중에서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의 활용 비율		
	인쇄자료	전자자료	계
인문사회	34.0%	66.0%	100%
과학기술	35.6%	64.4%	100%
계	34.7%	65.3%	100%

인터뷰에서도, 인문사회 학술연구자와 과학기술 학술연구자 모두 인쇄자료보다 전자 자료의 활용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자 자료를 모니터로 보지 않고 대부분 출력해서 본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출력한 자료는 제본하거나 자기만의 관리방식으로 스크랩, 색인, 메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파일형태의 자료 유실을 우려하거나, 모니터로 읽을 때 오는 눈의 피로감, 자료를 다시 이용할 때 자기만의 관리방법으로 쉽게 찾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검색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지만 자료를 읽을 때는 항상 인쇄를 해서 보는 편이다.” (영문학 전공, L 박사후보생)

“태블릿 PC 얼리어답터 중의 한 명이지만 여전히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거나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전자매체를 읽을 때 눈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 (보건학 전공, J 박사후보생)

나. 데스크톱 PC vs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학술정보량의 비율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학술정보량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데스크톱 PC 91.8%, 모바일 서비스 8.2%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데스크톱 85.6%, 모바일 서비스 14.4%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데스크톱 PC를 통해 대부분의 학술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표 10>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학술정보량의 비율

구분	데스크톱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학술정보량의 비율		
	데스크톱 PC	모바일 서비스	계
인문사회	91.8%	8.2%	100%
과학기술	85.6%	14.4%	100%
계	88.8%	11.2%	100%

인터뷰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의 경우 간단한 정보 검색이나 도서관 좌석 예약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면접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적었다. 대신 이동 중에는 노트북을 통해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으로 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원문 자료를 작은 모니터로 보면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매체가 더 많이 보급되고 진화한다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석사과정 연구자들을 보면 모바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보였고 미래에는 보편화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앞으로 태블릿 PC 보급이 확대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행정학 전공, C 박사후보생)

“PDF 자료를 볼 때 가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만 스크린 크기가 작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도서관 좌석 확인 및 서지정보 확인 정도다.” (재료공학 전공, S 박사후보생)

다.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에 대해 다중응답 조사를 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수업(지도교수) 7명(35.0%), 동료 4명(20.0%), 인터넷 4명(20.0%), 컨퍼런스 참석 3명(15.0%), 기타 2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수업(지도교수) 5명(27.8%), 컨퍼런스 참석 5명(27.8%), 동료 3명(16.7%), 인터넷 3명(16.7%), 기타 2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참조).

<표 11>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구분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다중응답)					
	수업 (지도교수)	컨퍼런스 참석	동료 연구원과의 채팅 또는 메일	인터넷	기타	계
인문사회	7	3	4	4	2	20
	(35.0%)	(15.0%)	(20.0%)	(20.0%)	(10.0%)	(100%)
과학기술	5	5	3	3	2	18
	(27.8%)	(27.8%)	(16.7%)	(16.7%)	(11.0%)	(100%)
계	12	8	7	7	4	38
	(31.6%)	(21.1%)	(18.4%)	(18.4%)	(10.5%)	(100%)

인터뷰에 의하면, 학술/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은 두 집단 모두 지도 교수들

통해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 이외에도 학회나 컨퍼런스 현장에서, 친분 관계가 있는 선후배, 동료로부터 얻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지만 개인이 정보검색, 단행본, 논문을 읽으면서 얻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순 아이디어와 결과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단순 아이디어는 동료 및 선후배와의 비공식적인 대화나 비체계적인 검색을 통해 주로 얻는다. 학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지도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 (정책학 전공, K 박사후보생)

“교수 및 동료들과 대화하거나 개인 검색을 통해서 파악한다.” (생물약학 전공, Y 박사후보생)

라.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에 대해 다중응답 조사를 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학술정보포털사이트 11명(36.7%), 인터넷사이트 10명(33.3%), 도서관사이트 8명(26.7%), 학협회사이트 1명(3.3%)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인터넷사이트 9명(33.3%), 학술정보포털사이트 8명(29.7%), 도서관사이트 6명(22.2%), 학협회사이트 2명(7.4%), 해외출판사사이트 1명(3.7%), 기타 1명(3.7%)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는 두 집단 모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사이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

구분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즐겨 찾는 사이트 (다중응답)						계
	도서관 사이트	학술정보 포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해외출판사 사이트	학협회 사이트	기타	
인문사회	8	11	10	0	1	0	30
	(26.7%)	(36.7%)	(33.3%)	(0.0%)	(3.3%)	(0.0%)	(100%)
과학기술	6	8	9	1	2	1	27
	(22.2%)	(29.7%)	(33.3%)	(3.7%)	(7.4%)	(3.7%)	(100%)
계	14	19	19	1	3	1	57
	(24.6%)	(33.3%)	(33.3%)	(1.8%)	(5.3%)	(1.7%)	(100%)

* 학술정보포털사이트란 NDSL, RISS, 국회도서관 등을 말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는 두 집단 모두 구글이나 구글 스칼라를 가장 먼저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글 자료를 검색할 경우 네이버를 우선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RISS나 국회도서관을 선호하지만, 과학기술 학술연구자의 경우 NDSL이나

Science Direct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주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SciFinder나 Reaxys (화학전공), KIPRIS(특허)를 먼저 검색하고 구글을 나중에 검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연 구글이나 구글 스칼라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세부 주제와 관련해서는 SciFinder나 Reaxys 를 검색한 후 구글 스칼라로 이동하는 편이다.” (재료공학 전공, S 박사후보생)

마. 인터넷 환경을 통해 획득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인터넷 환경을 통해 획득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에 대해 다중응답 조사를 하였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학술정보포털사이트 10명(33.3%), 도서관사이트 9명(30.0%), 인터넷 사이트 6명(20.0%)의 순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학술정보포털사이트 9명(36.9%), 도서관사이트 5명(20.0%), 해외출판사사이트 4명(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학술정보포털사이트(NDSL, RISS, 국회도서관 등)를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인터넷 환경을 통해 획득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구분	인터넷 환경을 통해 획득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다중응답)						계
	도서관 사이트	학술정보 포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해외출판사 사이트	학협회 사이트	기타	
인문사회	9	10	6	2	2	1	30
	(30.0%)	(33.3%)	(20.0%)	(6.7%)	(6.7%)	(3.3%)	(100.0%)
과학기술	5	9	2	4	4	1	25
	(20.0%)	(36.0%)	(8.0%)	(16.0%)	(16.0%)	(4.0%)	(100.0%)
계	14	19	8	6	6	2	55
	(25.5%)	(34.6%)	(15.4%)	(10.9%)	(10.9%)	(3.6%)	(100.0%)

인터뷰에 의하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와 과학기술 학술연구자 두 집단 모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RISS나 국회도서관, 도서관 웹 사이트를 높게 신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NDSL이나 Science Direct를 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말하는 신뢰도 기준은 영향력(Impact Factor)이나 권위가 높은 학술지에 수록되거나, 전문분야의 대가들이 발표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구글이나 네이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도서관, 미의회도서관, 통계청 사이트, 대학도서관 웹 사이트는 신뢰하는 편이다.” (사회복지 전공, J 박사후보생)

“검색사이트의 신뢰도 보다는 학술지의 인지도를 본다. 전공과 관련된 주요 저널이 Science Direct에 있어서 Science Direct에 있는 저널 논문을 신뢰한다.”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L 박사후보생)

6. 전자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가. 전자정보원 활용의 장점 / 전자정보원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점 내지 불편한 점

전자정보원(전자자료)의 장점은 정보획득 시간 단축, 접근의 편리성, 활용의 편리성 등을 제시하였다. 반면 단점(문제점 내지 불편한 점)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적합한 정보 식별의 어려움,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 파일 손상, 모니터에서 읽는 불편함, 유료화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유료화와 관련하여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자에게는 국가가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간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홍수로 인해 또 다시 필터링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학 전공, K 박사후보생)

“장점은 쉽다는 것이다. 시간과 과정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 불편한 점은 거의 없지만 저장한 자료가 파손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 (보건학 전공, J 박사후보생)

나. 미래 학술정보 이용환경에 대한 예측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검색결과가 스마트하게 시각화되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고, 저작권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자료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언어장벽이 해소되고, 눈의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매체가 출현하고, 저널내의 이미지 활용 기능이 우수하게 되고, 오디오 북의 이용 및 활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검색결과가 3차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마우스를 대면 검색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서로 연관성 있는 자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여 지거나, 시각적으로 연관성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학 전공, K 박사후보생)

“현재 일본어나 독일어로 된 자료도 중요한 것이 많은데 언어장벽으로 잘 이용하지 못한다. 미래에는 언어의 장벽이 낮아질 것 같다.” (보건학 전공, J 박사후보생)

V. 결 론

국내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 박사과정 학술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이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보다 도서관 웹 사이트와 도서관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자들이 도서관 웹 사이트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도서관이 구독권을 가지고 있는 전자자료(원문)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로 활용하거나, 단행본을 이용을 위해서, 전자 자료를 인쇄물로 출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이나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는 두 집단 모두 학술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자들은 단행본과 학위논문을, 과학기술분야 학술연구자들은 연구보고서나 특허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과정에서 사회과학(행정학, 정치학)분야 학술연구자들은 특별히 전공 주제와 관련하여 통계자료, 신문자료, Raw Data 등 통계데이터나 최신성 있는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술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은 두 집단 모두 논문작성이 주요 목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과제 수행, 프로젝트 기획(수행), 동향 파악, 강의 준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술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두 집단 모두 지도교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문사회분야가 과학기술분야보다 더 지도교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분야는 지도교수이외에도 선후배 동료연구자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컴퓨팅 환경에서 IT Skill과 정보 활용 능력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 참여한 피면접자 대부분이 연령대가 젊고, 박사급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정보검색에 있어서 기본검색을 훨씬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상세검색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문사회(행정학 전공) 학술연구자들은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보다 키워드 검색 대비 브라우징 검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쇄자료와 전자자료의 활용 비율은 두 집단 모두 인쇄자료 보다는 전자자료를 2배 이상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자료를 모니터로 보기 보다는 출력해서 보는 경향을 보였으며, 출력한 인쇄물을 제본하고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 자신만의 관리방식으로 스크랩, 색인, 메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데스크톱 PC 대비 모바일 서비스 활용 비율을 살펴보면 데스크톱 PC(88.8%)가 모바일 서비스(11.2%)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바일 서비스 중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검색이나 도서관 좌석 예약 수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학술/연구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은 두 집단 모두 지도교수를 통해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학회나 컨퍼런스 참석, 친분이 있는 선후배 동료 연구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인터넷 환경에서 원하는 학술정보를 찾기 위해 두 집단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학술정보 포털사이트를 즐겨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구글이나 구글스칼라를 가장 먼저 접속하고, 한글자료는 네이버를 우선 검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포털사이트에 대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자들은 RISS나 국회도서관을 선호하고, 과학기술 학술연구자들은 NDSL이나 Science Direct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째,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학술정보 포털사이트와 도서관 사이트를 우선으로 꼽았다. 반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번째, 전자 자료의 장점은 정보획득 시간 단축, 접근의 편리성, 활용의 편리성을 제시하였으며, 반면 문제점 내지 불편한 점은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적합 정보 식별력의 어려움, 표절이나 저작권 문제, 파일 손상 및 유실, 모니터에서 읽는 불편함, 정보 유료화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희망 사항으로 도서관 웹 사이트도 구글처럼 쉬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두 집단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학술정보 활용 목적, 정보 활용능력, 인쇄자료 대비 전자자료 활용 비율, 연구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경로 분야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학업이나 연구와 관련하여 주로 활용하는 자료, 즐겨찾는 학술 포털사이트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IT 기술과 인터넷이 급변함으로써 이용자들은 도서관 사서가 알아채기도 전에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도서관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은 꾸준히 그들의 정보요구 사항과 이용 행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